

대니기 제

파를 못 참았다 내가 하고 싶은 거만 하고 싶어 나고

욕심이 많았다 휴대폰은 손에서 못 땀고

같은 것 쓰지 않고 누구를 보면만이 만나면

~~나를 기억 못한다~~ 나를 기억 못한다 봐서 지내다 먼저 인사
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좀 차분한 성격 같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만 잘 해주고

진짜로 언니고 자꾸 사귀어 사귀어 나가
등 밟는다 사귀고 그날 안 보았다

12/22 1/0



장

달라진 점

2017.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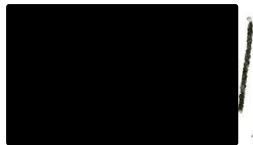
1. 생각을 빨리 할 수 있게 되었다.
2.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게 되었다.
3. 전에 없었던 리더십이 생겼다.
4. 핸드폰을 덜 만지게 되었다.
5. 약속을 더 잘 지키게 되었다.
6. 많은 습관을 고쳤다. (종소리, 등)
7. 목표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8.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9. 반말을 항상 말걸 할 수 있게 되었다.
10. 책을 빨리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많은 책을 빨리 이해하게 되었다.
11. 사교성이 좋아지고 친구와 변이 친해질 수 있다.
12.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13. 학교 친구들에게 토론할 때나 이야기 수업, 극이 수업을 할 때 나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14. 옛날에는 핸드폰이던 시간이 정시간으로 바뀌어 말하느라, 토론, 질문, 아이디어 모든 하는 것이 됐다.

▶ 다니기 전.

생각이 느리고. 처음들어왔을때는 낯가림이
좀 심하고. 발표해도. 손 늦게 들고 그려보는 거
고리고 아이디어 노트나 인문학일기 같은 경우
도 아이디어 노트. 까먹고. 아이디어도 없고.
깜박하고 안까지고 다니고 그려보는 거 인문
학일기도 진공할거 없었지. 그런 거

▶ 그리고 후쿠라는 인문학일기 질문이 추워질해
지고. 아이디어 노트를 잘가지고 다니고
아제는. 어쩌다가 발표 늦게 한한적도 있고
낯가림만고. 친화력이 좀더 생겼고. 그래프
많이 아껴두었던 거 인문학일기나 하는 거
보면 주위에서 만하고 내가 집중력이
업에서 인문학일기가 다들 친구를 보러
많이 늦어지고.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움고.

▶ 앞으로는. 다들 사랑받고 러 소홀로 많이 하고
목표안하고 예뻐말안쓰는 사랑이 되도록
노력 하고. 집중력이 러 향상 되어서
진짜. 저러를 자랑이 되고 싶은 거!



꿈 들어오기전 나의 모습

꿈은 있지만 꿈만 있고 어떻게 살아갈지 이루어 나갈지 대책이 없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잘 알지 못했다.

당당했고 당당하다 못해 생각이 없어진 것 같다. (내 멋대로)

결론만 판단해서 처음에는 생소한 말인 '꿈'에 안주려 했다.

꿈에 들어온 후 나의 모습

꿈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갈지 계획이 생기고 평소 일상에서도
막연함이 쉽게 계획을 써나간다.

사람과 살면서 보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중요 한 것이
무엇인지 점차 깨달았다.

예전와는 당당하지만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을 한다 아직도 내 멋대로이지만...

이제는 결론은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속제가 있었던 나에게 장대고 나서 매일 아이디어
노트를 작성하다보니 귀찮아서 무관심이 생겨져 버렸다.

그다음, 꿈을 대니면서 나의 변화는 잘못된거나 누군가 오
다듬이 있을 때는 하루만에 사고하고 외어내려 한다.

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나는 계속 짱을 대면서 생긴 미련등판 (원래 있었지만)을
꼭 고치고 리더역활은 너무 잘하고 싶고 짱리더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큰 일은 하고 내려오고 싶다. 하지만 잘되지 않아 힘들고, 내가 진짜
리더인지 정체성 혼란이 와서, ^{내가} 포기한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러운 감이
있는데 ^{인정}인정하고 싶지 않다.
별로

2019년 12월 22일 금요일

짱에 다니기 전에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게 어려웠는데

짱에 다니면서 새로운 친구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게 어렵긴 하지만 즐거워
져서. 그래서 평화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것도 설렌다.

또 짱에 다니기 전에는 중요한 발표를 할 때 계속 생각을 정리하다

발표를 놓치고 발표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짱에서 발표를 계속하다보니

발표하기 전 생각하는 시간이 짧아진 것 같다 그래서 발표를

하는 방식이 줄어들 것 같다. 또 너 진로에 대해서 더 구체

생각하게 된 것 같다 그 전에는 막연히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정하고

연습만 하면 된 줄 알았는데 짱에 다니면서 이쪽 어떤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런 진로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계속 나에게 질문을 던지게 된 것 같다. 또 인문학 알기와

멘토링도 때로는 희망 말하기를 하면서, 그 말들을 기억하고 말을 할 때

쓸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많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되면서 후속에서

독서감상문을 쓸 때 그 단어들 양하게 쓰라보니까 독서감상문 쓰기가 더

수월해진 것 같다. 발표하는 거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전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잘하기만 하면 한다는 부담이

줄어든 것 같다 이전에는 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만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그런 생각을 줄이게 된 것 같다.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꿈을 다니기 이전에는 이

PAGE
DATE

상 생활에 욕이 계속 섞여서 많이 나왔는데
 데 꿈을 다니고 나후에는 주변에서 욕이
 줄었다는 막과 언한막은 말이 하리알는
 가는 막을 들었다. 그리고 꿈을 다니기 이전에는
 꿈이 여러 개서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할지 매우 헷갈렸지만 꿈을 다니고
 난 이후로 꿈이 개르 확정되어서 가고있고
 꿈을 다니기 이전에는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도 그냥 대충 남기고
 그랬는데 꿈을 다니고 난 이후로는 아이디어
 노트에 꼬박 꼬박 적기 시작했디.
 그리고 또 꿈을 다니기 이전에는
 모르는 사람들과는 말 한마디도 섞어주
 리 욕 한했으디 남기림이 많아서
 남의리 많은사람과는 아무말도 타리욕했고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 많은 말씨 논리적으로
 잘 타리 알고 말을 타리주 말투어기때
 막은 했디 타리만 꿈을 다니고 난 이후로
 는 모르는 사람들과 남의리 많은사람들과도
 많은 말씨 타리주 있게 됨으로써 자신감
 이 많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
 기를 할때 논리적으로 얘기하며 말을
 이어내게도 또 생각은 많이 리기해서
 주변 사람들이 공견에 타렸음씨
 도와 주었디. 이전에는 정리 같은것도
 욕 하고 그랬지만 이후에는 나의 생각 정리도
 잘 하고 방이나 가방정리같은것도 잘 하게 되었다.

YANGJI

2011년 12월 22일 금

스팸에 들어가기전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어려웠었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나는 말을 걸지 못했었다.
하지만 스팸에 다니고 나서부터 처음 보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더
쉬워졌다. 상인분들께 인터뷰를 라는 활동을 하고 나서 부터
크게는 아니지만 큰리석 사람들에게 말을 걸는 것이 더
쉬워졌다. 그와 함께 자신감도 더 생겼다. 전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가 부끄럽고 긴장 되었었다.
하지만 스팸에 다니고 나서부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긴장 되기는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었다.
그렇게 되면서 발표도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할 수
있었으며 말도 더 명료하게 할 수 있었다. 말도 더 명확하게
하게 되면서 내 의사도 더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전에는 내가 불편한 것 같은 것 등이 있는데 말하기 않고
참고 넘어가지만 이제는 불편한 게 있으면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싫다고 더 강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비권적인 ~~또한~~ 더 도전적인
태도가 생겼다. 예전에는 친구가 축제 공연에 같이
나가자고 하면 귀찮아서 나가지 않았지만
장비를 대고 나서는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생겼다.
친구와 함께 축제 공연에 나가게 되었다. 가장 큰 도전감이
바뀌었는데 내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전에는
그저 장래 희망이 과학자 있고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려고 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내가 무슨 장래 희망을
무엇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

2017. 12. 22

짱을 대하기 전과 후.

나는 짱에 대하기 전과 후가 완전 다른 것 같다.
첫번째로 다른 점은 '낯가림'이다. 내가 짱에 대하기 전에는 낯가림이 정말, 너~무 심했다. 어느 정도 옛날하면 내가 나랑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보는 사람 앞에서는 울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했는지 짱을 다내고 나서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내가 먼저 말을 걸어서 친해지고, 친해진 사람과 더욱 친해질 수 있게 되었다.

두번째는 '발표'이다. 짱에 대하기 전에는 발표가 가장 두렵고, 무서웠다. 학교선생님께서 "나연아 발표해봐" 라고 하실때면 어디 아픈 것 마냥 식은 땀을 흘리고, 목소리도 기어들었다. 그래서 선생님과 나의가 애고 선생님이 국어시간 때는 거의 발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 하지만 짱을 다내고 난 후는 국어선생님께서 "나연이가 가장 발표를 잘하네" 라고 하시고, 국어시간에 하는 "내가 나를 소개하기" 수행평가에서 만 점을 맞게 되었다. 또한, 외부에서 오는 독서토론 전문가 선생님께서 '애(나)가 가장 말을 또박또박하고 ^{발하는} 속도로 알맞게 했다' 라고 인정 받기도 했다. 나는 앞으로 이 루까지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눈이 풀 만큼

자장에 들어오기 전

1. 자신감이 없었다.
2. 가족과의 대화가 많지 않았다.
3. 질문을 못만들었다. (생각이 나지 않았다.)
4. 친구들을 잘 못 사귀었다. (먼저 다가가지 못했다.)
5. 상상력이 부족했다. (과제가 있다면 계속 고민한적이 있다)
6. 생각이 짧았다. (생각이 짧아서 오해받은적이 있었다)
7. 용기가 변도 없었다. (자신감 부족)
8. 책을 아예 안읽었다.

자장에 들어온 후

1. 아직 자신감이 많아지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생기고 있다.
2. 가족과의 대화가 많아졌다.
3. 질문 못만들지만, 질문을 만들수 있게 되었다.
4. ~~잘~~ 친구를 잘 사귀지는 못하지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5. 상상력이 풍부해 지지는 않았지만, 그러고있는 중이다.
6. 생각이 길어졌고, 생각 하는 시간도 ^{자애 대하기} ~~전반도~~ ^{전반도} 많아졌다.
7. 들어오기 전에는 ~~책~~ 씨앗이였지만, 지금은 새싹으로 성장했다.
8. 긴 소설 책도 읽게 되었다.

전

내가 장애 오기전에는 내가 발표도 잘하고 장난기도
놀이 배배고 잘자신감있게 말하고 체육도 잘했
다 그리고 평생 씩이나 친구가 없었고 발표할때도
목소리가 작았다 (어니 변심하게 크거나) 그다음에 (은행에서
잘못 지냈하고) 발표도 안좋았다 ~~다~~ 그리고 디자인 하는 단어를
안지냈고 아는 친구 아니면 잘 친구를 사귀지 못했

1년 후

후

하지만 장애 오고나서는 발표도 잘하고 장난기도 많이 놀았다
놀이 자신감있게 말하고 무대에서도 긴장감이 덜어졌다
하고 체육도 이제는 잘하고 평생 씩과 친구도 생겼다 그다음에
내 아이디어를 발휘할수 있게 된 디자인 하는 단어와 세계를 디자인
하는 단어도 알게 되었다 수어도 늘었다 친구도 잘 사귀게
되었다 그다음에 용기도 생겼다

2017/12/11/목

나는 짜증이 들기 시작한 삽에서요, 내리걸은
자신에게 말해 오지 못했는데, 짜증이 다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신있게 말할수 있게 됐고

말은 해도 좀더 세련되게 말하고
쓰게 될것 같다.
그리고 자양법 비들과의 소통으로 인해
소통능력도 조금 좋아진것 같다.

그리고 비킷리스트로 봉사하는 것을
많이 해서 봉사 하는 마음도 조금 생기게
되었고, 나자신에 대한 비킷리스트도
나에게 도움을 많이 준것 같다.

그리고 인문학강좌로 인해 단어의 의미를
좀더 자세히 알게 되고, 비전문강사로 인해
상상력도 좋아지게 된다.



짜깁에 들어오기 전과 후

After

나는 짜깁에 들어오기 전에 혼자 놀기를 좋아하고 발표와 질문하는 걸 싫어하고 우리학교에서 2문반 2심쟁이였다. 그리고 내가 친한 친구하고 만 친하게 지내는 식이었고 어떻게 공부할지 모른채 공부하고 있어서 생각에는 방향이 없었다. 그리고 맨날 뭘할지 모르는 포기하는 식이 었다.

Before

그러고 내가 짜깁에 들어오면서 바뀌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의욕이 있었고 내 생각자체가 다른데로 가있고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꾸준히 꼭 다니다 보니까 하나둘씩 방향이 생기기 시작했다.

말은 말이 안아졌다. 말이 안아져서 발표와 질문은 열심히 하게 되었다 그래서 더 머릿속에 든것이 많아졌다. 그리고 말이 안아지니까

더 활발해지고 의욕이 넘쳤다. 언젠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용감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쉽게 볼수 있게 되었고 자신감을 얻어서 더 많은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와 부대들이 매우 많아졌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운것은 토대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렇게 공부하니까 생략도 틀리게 않게 되었고 의욕이 생기니까 악기 수준도 수준급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새로운 악기도 도전해서 실력이 팍팍히 시작했다

그리고 도전정신이 불타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나를 사로잡는 고정관념은 하나둘씩 깨지고 있다. 지금도 새로운 도전은 하고 있고 다른 고정관념들도 깨면서 가고 있다.

그리고 저변변화 된것은 해방과의 관계였다. 의욕이 생기면서 기도로 하고 싶었다.

그래서 계속기도 하다보니까 해방과 친해지게 되었다.

나는 내 자신이 변화되어 기쁘다.

강에 들어오기 전

2

1. 자신감이 높아지고 학교에서 발표하는 습관이 늘었다.
2. 인문초양기를 통해 수많은 단어를 알게해서 학교생활이 쉬워졌다.
3. 불편한 점들을 용기있게 학교에서 지시해왔다.
4. 강을 통해 나의 진로를 알아갈 수 있었다.
5. 사실 비판, 상상, 실천, 교훈등 여러가지 질문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강에 들어오기 전

1. 자신감이 좀 떨어졌다. (학교에서 발표할 때)
2. 단어나 문장 파악이 어려웠다. (고학년이니까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
3. 새로운 단어를 활발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불편한 감정을 지시)
4. 나의 꿈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
5. 여러 종류의 질문을 만들 수 없었다. (사실) 질문만 거의 대부분이었다.

전

2017. 12. 21

내가 짜장을 다니기 전에는 학교에서 발표를 잘 안하고
학원을 가지 않아서 시간이 2시간이 남아서 집에서 맨날
텔레비전만 보았다 그리고 계속 놀기만 하고 잠을 잤다
그리고 내가 단어는 아는데 뜻을 몰라서 궁금했는데
알고리즘이 없어서 계속 뜻을 모르고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놀 사람이 없었다

101

내가 짜장을 다니고는 학교에서 발표를 잘 했다.
인제 짜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집에서 텔레비전
만보고 계속 놀기만 하지 않고 짜장들과 과토의 곱하게 되어서
혼자만 있지 않고 짜장들이 있어서 좋다 그리고
뜻을 모르는 단어도 알게 되어서 좋았다 그리고
짜장이랑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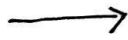
들 오기 전에는 저가 질문이라는 걸 생각도 못 했고
들 오기 전 가져이 짱이란 데가 얼마나 재미있는 곳이
고 행복한 곳이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데지 몰라서
긴장도 했고 저도 마음이 멍멍한 데서 가져
음침에 있는 데임마가 어떻게 저 때 라 갔는데
짱이란 곳이 벗어 댤음에 피기 올 때 첫 날
에는 많이 긴장되고 무서웠는데 3주 일 다녀
고나니 금세 적응 했 다, 드 러와 서는 이 형
들이랑, 누 나 들 을 만 나서 많이 대화 도 나누
고 칼이 비전 일 기와 평생 친 구 노 트 도 풍 사 고 푸
드 토 도 하 면서 더욱 더 친 해 지 고 서로 많이 말하
가 나 지
였다.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2017.12.22 (목)

짜증을 다스리기 전

한주제를 가지고 등회심어, 요약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자신의 생각을 할 때 (반복, 대조)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짜증을 다스린 후

• 등회심어, 요약하는데 시간이 조금 빨라졌다.

• 시간이 걸리지만 예전보다 더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12/22. 금

매주 버킷리스트를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이번 주말만 해도
계획을 짜 공부할 하겠다는 것을 버킷리스트로 했는데 항상
그것을 지키기 위해 책을 더 보고 책상에 앉아 있었더니
결과가 많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할지 생각들
하다보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자기반성도
하게 되었다. 진정한 절학 고민도.
여러모로 '재능'을 통해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은 대략 놓은 것 같다.

장을 들어오기 전후의 변화



우선 장을 다니기 전의 나는 남앞에서 말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고 그리고 진로 설계, 미래 계획 등은 잊어 버리고 계획하지도 않은 채 하루 하루 계획 없이 살며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 무엇이고 잘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아이였다 하지만 이 장이라는 곳을 경험하고 활동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거부했던 발표가 거부감이 줄어든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고 또한 하루 하루 계획과 비전 없이 살아갔던 내가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말에 들어 와서 달라진 점

1. 난 원래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주장을 말하는 것을 꺼려하였던
하지만 앞에서 친구나 선배들과 이야기 하면서 그 어려움이 줄어든 것 같다
2. 버킷리스트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 생각이었는데
하지만 내 버킷리스트에 무엇을 ~~만들어야~~ 채워야 하는
버킷리스트를 하면서 그 비결이 좀 더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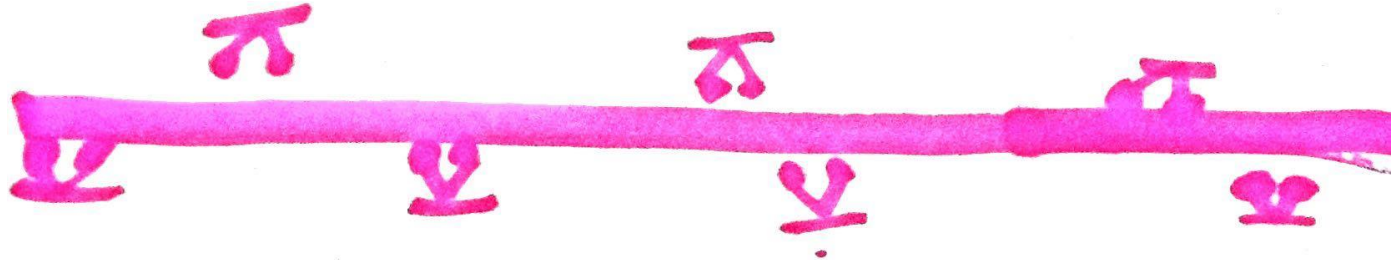
3.

짱을 다니며 변한 점

나는 짱을 17/17 (월)부터 부모^님께서
다녀보라고 하셔서 짱을 다니게 되었다.
짱을 다니기 전보다 질문이 더 쉽고 빠르게
잘 만들어지고 버킷리스트를 통해
일주일간 약속한 것도 더 잘 지켜졌다.
그리고 여행을 통해 모르는 것도 많이 알고
즐거운 경험이 많아진 것 같다. 앞으로도
짱을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다녀야겠다.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장르 다니기 전에는 아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질문도 별로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질문을 만들 때 시간도 오래
걸렸다. 혼란 때 빼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서 이목질이 많이 들어간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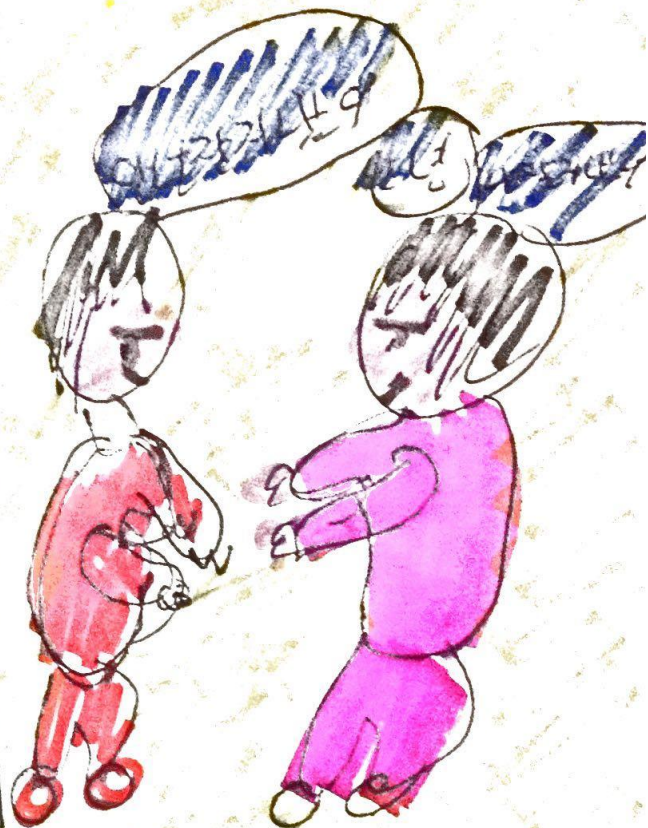
장르 다닌 후에는 아는 단어도 많이
늘었고, 인문학 알기, 집중점 응시, 아이디어
를 하게 되고, 인문학 알기는 단어를 많이
아는 데 도움이 되었고, 집중점 응시는
별다른 게 없지만 이목질을 빼는 데 도움이
되었고 아이디어는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2004년 12월 20일 토요일

사랑 나누기 전



사랑 나누고 나서 후



이는 사랑은 나누기 전에 지극 무한 사랑을 아무도 몰랐는데
 처음으로 무한 사랑을 देने는 사람들이 친구 친구를 같이
 알게 지낼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행복하게 되었고 사랑을 देने는 사랑은
 하고 더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더 많은 친구와 더 많은 친구(많은 사랑)라고도
 더 친하게 되었다.

2017년 12월 20일 (수)

장을 다니며 바뀐 점!!

성격이 활발하지 않았는데 장에 오며 활발해
지것 같다. 그래도 소심하진 않았다. 또 질문을 잘하게
되것 같다. 더욱 많이 마음이 편해 져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버킷리스트를 써서 내가 그걸이
루는 것이 너무 좋다. 그래서 활발해 져것 같다.
또 여행하며 내가 모르고 있는 곳도 여행하면서
알아가니 더 많은 곳을 알고 새로운 멘토님들을 만나
신기하고 재미있다. 그래서 또 활발해 져것 같다.

위 내용은 사실입니다.




2017, 12, 20

나는 자장을 7월쯤 꿈에 부모님의 소개로 인해
자장을 다니게 되었었는데 나는 자장을 다니게 된 후
버킷리스트를 해서 하루하루 목표가 있었지만
그전에는 하루하루를 의미 없게 보냈었다 또
자장을 다니게 된 후에는 두 줄 대화를 할려고
노력중인데 그전에는 요즘만 말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었다.
또 자장 선생님의 제안으로 부모님의 포장을
바꿔주고 줄대 말도 써가는데 그전에는
줄대 말을 쓰지 않은 걸로 보아
자장은 내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2019. 12/20 (월)

저항은 들어오기 전에는 질문을 많이 만들어 보지 않아서
질문 만드는 것이 어려웠지만 장애 들어오고 나서 질문 만들기
가 유독 편리해 진 것 같다.

귀 내용은 사실입니다



5

2017. 12. 20 (수)

짱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친구들을 배려하지
않고 남의 말을 귀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리고, 남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았었
는데 짱에게 들어오고 나서는 남을 배려
해주고, 질문을 잘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또, 남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남이 기분
나빠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남이 말할 때 경청하여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위 내용은 사실입니다.

1
[Redacted]